동계스포츠의 선진화를 주도하는 설원

꿈과 낭만, 휴식, 삶의 평안을 주는 지역

태백의 호흡으로 한반도를 맑게 푸르게

에너지자원 개발의 보고, 희망의 도시

1 세계적인 동계스포츠 메카로 육성
2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복합물류·교통체계 구축
3 관광 R&D 파크 조성
4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과 연계벨트 구축
5 동해안 에너지벨트 조성
6 생물의약소재 클러스터 구축
7 설악권에 리조트형 테마파크 조성
8 강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
9 철원 플라스마산업 첨단 R&D 집적지 조성
10 접경지역·폐광지역의 자립경제 활성화사업 지원

에너지 자원의 보고(寶庫)

강원도

강원도를 신성장동력의 발원지로 만들겠습니다.

강원도를 신성장동력의 발원지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적인 동계스포츠 메카로 육성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력신장의 동력으로서 국가적 과업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88서울올림픽에 이은 '한국올림픽 완성', 국가위상과 브랜드 제고,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을 모두 개최한 스포츠 선진국 진입, 남북한 단일팀, 공동훈련, 성화봉송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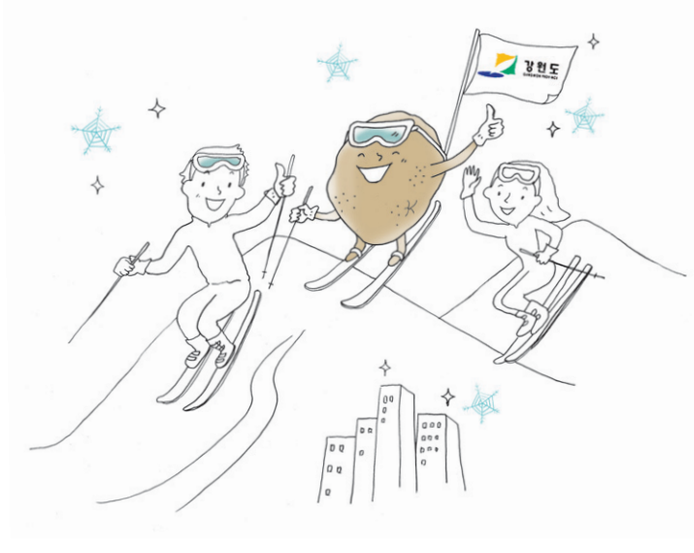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큽니다. (생산유발효과 15조 원, 부가가치 7조 원, 고용창출 22만 명-한국산업연구원('07년 2월))

두 번의 유치과정에서 쌓아온 경험과 인적·물적 자원, 국제적 환경과 평창의 경쟁력 측면에서 2018대회 유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책공약

2018동계올림픽 유치 어젠다 설정

- 국내 동계스포츠의 최적지인 강원도의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국가어젠다로 선정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조기에 2018대회 유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겠습니다.
- 각종 국정홍보 매체를 활용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계획된 인프라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강원도를 세계적인 동계스포츠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복합물류 · 교통체계 구축

남북경협 확대와 러시아 · 중국 · 한반도 · 일본을 잇는 동북아경제시대가 진행되면, 동북아경제권과 함께 유럽(EU)시장과 연계되는 유라시아 통합경제권의 형성과 남북관계의 역할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ASEM, UN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등 국제기구의 TKR(한반도종단철도)과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합니다.(러시아 시베리아 에너지자원 개발, 중국 경제대국 부상, 북한 특구개발 등)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연계되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동북아 경제권과 함께 유럽(EU)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동해안축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유라시아를 잇는 '복합물류 ·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공약

도 전역의 접근성 개선

- '복합물류 · 교통체계' 구축을 새정부의 프로젝트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도 전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경제성 논리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사업을 조기 추진(제17대 대통령 공약사항)하겠습니다.
- 동해북부선(강릉~저진) 철도의 조기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동해고속도로(주문진~고성) 양양~고성 미착수 구간의 조기 착수를 건의하겠습니다.



관광 R&D 파크조성

관광산업이 국제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국내 관광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관광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분위기 선도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R&D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관광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국가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강원도는 관광 R&D단지 구축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 및 접근성, 산·학·연·관·민 지역혁신체계 구축 용이, 행정적 역량 충만, 국내 최대 관광자원 보유, 연구인력 확보 용이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책공약

관련 국책사업 추진

- 국가전략산업인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거점단지 구축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관광지식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동북아 관광거점 위상 확립을 위하여 연구, 교육, 휴양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강원 관광 R&D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과 연계벨트 구축

메디컬 콤플렉스는 의료+농업+바이오산업 등이 연관된 고부가가치 창출의 복합 의료산업단지입니다. 강원도는 이미 춘천, 원주, 강릉지역을 거점으로 의료, 바이오, 해양생물 등의 산업을 특화육성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지역이며 의료기기특화 육성지역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강원도에 세계적인 메디컬 콤플렉스를 건설해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공약

복합메디컬 – 헬스케어단지 구축

-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의료기기산업을 특화육성하고 있는 강원지역의 특성을 살려 메디컬 콤플렉스를 조성해 광역권 경제성장 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 거점병원(춘천~원주~강릉 위치)을 중심으로 메디–텔(Med-Tel)을 조성하겠습니다.
- 레저와 휴양을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헬스케어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거점병원과 연계). 이를 위해 메디컬 과학기술 육성(강원/충청권 일원), 한의약 생약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 차세대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내 의료산업의 세계화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기업도시 연계형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원주지역에 분산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도시(정주환경) + 복합단지(비즈니스모델) → 정책사업간 윈-윈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접한 충북권과 동종산업의 연계벨트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동해안 에너지벨트 조성

동해안지역은 대관령 풍력, 원자력, 천연가스 등 국내 에너지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에 국가 제4 LNG기지 건설이 확정되면 '신재생에너지 + LNG + 석유(유전개발 대비)' 등 복합에너지 생산 및 정유기능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세계최대의 석유매장량 보유국인 러시아에 근접, 러시아 자원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북한, 러시아 등과의 접근이 용이한 동해시 동해항을 에너지 물류기지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동해안지역은 에너지 관련 대학과 연구소 등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차세대 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정책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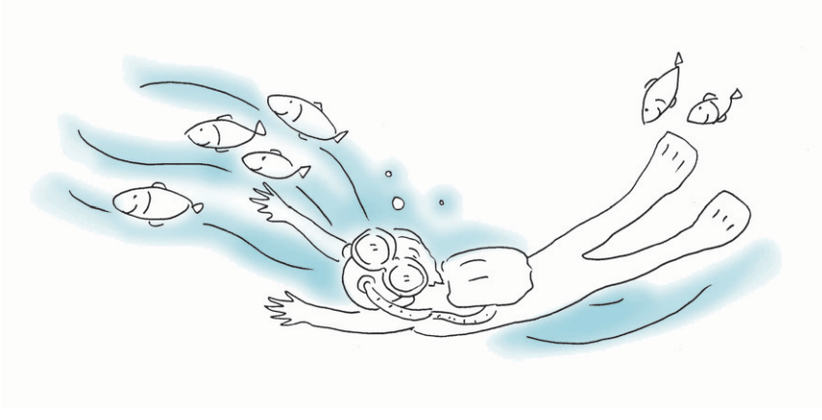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동해항을 거점으로 한 동해안 에너지벨트를 조성해 환동해권 국가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개발 경쟁에 대응한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항만시설 확충과 컨테이너 부두 설치, 동해시 송정동 동해항('08~'12년), 컨테이너 전용부두 1석(510억 원), 원유저장 및 정제시설(1조 1,520억 원), 삼척 LNG 제4생산기지 건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해·삼척·강릉시내 5개지구 39.482㎢('09~'28년, 3조 999억 원)에 복합물류, 산업, 관광·레저, 배후 지원도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 동해안권 연계교통망 구축 및 물류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동서관통 순환도로기능 및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동해안 전역(경북+강원)을 연계한 에너지 벨트화, 이를 통한 국가 에너지 확보, 개발의 안정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생물의약소재 클러스터 구축

강원지역은 청정 자연환경 및 천연자원 보유로 환경친화적 바이오 산업지로서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아시아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고 역동적이며 종합적인 기술생태단지를 조성해 세계 바이오 시장 진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생명공학연구소 유치

- 국내외 유수 생명공학연구소를 도내에 유치하여 연구역량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끌겠습니다.
-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 등 지식기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설악권에 리조트형 테마파크 조성

2001년 이후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는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된 이후 설악산 관광객 수가 약 30% 감소하는 등 설악권 관광지역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는 금강산 관광에 기인하기는 하나 관광과 레저, 엔터테이먼트를 결합한 관광상품을 원하는 투어테인먼트(Tourtainment)로 변하고 있는 추세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세계잼버리대회 이후 활용성이 미미한 250만 평의 대회장에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유치하여 관광과 오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테마파크를 조성할 경우, 침체된 설악권의 경기 활성화는 물론 환태평양 지역의 경쟁력 있는 중심적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공약

동해안 관광거점화 도모

- 고성군 토성면 구 잼버리대회장 주변에 약 100만 평 규모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등 세계적인 테마파크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향후 금강산, 해금강과 연계한 통일관광벨트를 조성해 남북한 긴장완화 및 설악동 지역과의 연계개발로 시너지효과 및 동해안 관광거점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강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

강원 남부지역은 지하광물자원과 산림자원이 풍부하지만 대형 산불, 풍수해, 광산사고 등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여 예방차원의 방재산업의 조기정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계 최초로 방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전략적 특화산업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정책공약

연구단지 조성

- 산업자원부의 '2단계('08~'12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단지조성에 필요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 및 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방재소재 산업기술혁신센터 건축 및 산업화 기술지원체제 구축, 첨단기술 개발과 고부가 제품화로 방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산화 대체 기술개발, 방재산업 기반조성으로 기업집적화를 일궈내겠습니다.

철원 플라스마산업 첨단 R&D 집적지 조성

WTO 체제 및 FTA 체결 등 개방이 가속화함에 따라 철원의 농축업 중심 1차산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구조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 플라스마 산업 중심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경제발전과 타 지역간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책공약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 지원 확보

- 플라스마 산업의 인프라구축 단계로서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을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자원부의 '2단계('08~'12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계획'에 따라 첨단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 및 기술이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여 기업연구소 유치, 고급인력 확보를 통해 R&D 및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의 자립경제 활성화사업 지원

남북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낙후지역입니다.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개정과 이에 근거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은 과거 탄광지역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나 석탄산업 합리화조치 이후 폐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과 탄광지역이 자립경제의 기틀을 마련할 때까지는 종합계획상의 각종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책공약

대체산업 육성 및 관련산업 인프라 구축

- 낙후된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 대체산업 육성 및 관련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립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폐광·접경지역에 공공부문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정부계획으로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접경지역 6개 시·군), 접경지역 중 76.8%를 차지하는 청정지역에 대한 보전, 정부의 종합계획 수정 보완 및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국비지원 확대, 토지이용규제의 계획적 관리규제 전환, 남북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겠습니다.
- 폐광지역 '2단계 진흥사업'을 지원(폐광지역 4개 시·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레저산업 등 대체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건강휴양단지 조성 등 관광휴양시설 확보, 주택건설 등 생활환경개선, 하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태백에 '고원스포츠트레이닝', 삼척에 '한방 웰파크', 영월에 '신재생에너지 뮤지엄', 정선에 '생태체험공원, 카지노 배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